

담양에 '아소팜랜드' 들어선다

일본식 대규모 온천테마파크 ... 200억원 투입 내년 말 완공

담양군 금성면에 일본식 대규모 온천테마파크인 '아소팜랜드'가 들어선다.

담양군은 지난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관광자원 개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주)화인에이티스와 '아소팜랜드 인 담양' 개발에 200억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소팜랜드 인 담양'은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100만평 규모의 온천테마파크 시설을 축소해 담양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아소팜랜드 인 담양은 부지 6만26천㎡에 숙박시설(동하우스), 건강식당, 한방목욕 및 농장 체험관과 관람관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담양군은 이를 위해 금성면 일원의 군 소유 생태공원내에 부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스머프 집을 닮은 일본 아소팜 빌리지의 동하우스.

이에따라 화인에이티스는 일본 아소팜랜드를 소유한 호꼬그룹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200억원을 투자해 숙박을 하면서 농촌 및 건강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파크 조성에 나서

게 된다. 화인에이티스는 영남권에 있는 기계설비 전문업체로 최근 레저산업 진출을 위해 담양지역 투자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양군은 아소팜랜드 유치에 지난해 12월 이정섭 군수일행이 일본 현지지를 방문, 기술지원 협의를 했으며 올해 1월말에는 일본 호꼬그룹의 기타가와 카즈유키회장이 사업계획 협의차 담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일본 아소팜랜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스머프의 집을 닮은 아소팜 빌리지 동하우스를 비롯해 화산 온천, 유제품 판매장, 건강의 숲 등 8가지 테마로 조성돼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아소팜랜드는 숙박을 하면서 농촌 체험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테마파크"라며 "예정대로라면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정필수기자 bungy@

뽕잎·오디로 일본 유기농림규격 획득

나주 동의나라(주) 대표 강기운씨

국내 최초 ... 해외시장 '각광' 기대



지난 해 국내 유기농인증 획득한 동의나라는 일본 유기농 JAS심사까지 통과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유기농 뽕잎을 이용한 동의나라 뽕잎차는 어린 뽕잎을 채취해 녹차제다방법으로 만든 고급차로 이번 인증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초로 전남의 한 벤처기업이 뽕잎과 오디로 일본 유기농림규격을 획득했다.

뽕잎 전문기업인 나주시 남평읍 동의나라(주)(대표 이사 강기운·사진)는 최근 뽕잎과 뽕의 열매인 오디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유기농림규격(JAS)인증 획득했다.

동의나라가 획득한 JAS는 국제식품규격(codex)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한 일본의 '농산물질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일본 유기농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 등 주요 농업경쟁국들도 JAS 인증획득을 추진하고 있어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번 인증은 일본의 잔류농약검사기관의 모든 검사 절차를 합격해 이뤄졌으며, 엄격한 서류심사와 나주시 남평읍 뽕잎재배 현장에 대한 실사도 거쳤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딸기 신제품 육성

담양군, 로열티 지급 대비

담양군이 내년으로 예정된 딸기 품종사용료(로열티) 지급에 대비해 신제품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딸기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유전자원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분양받아 품종별 우량 특성을 고려한 교배조합을 만드는 등 농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센터는 현재 선발대상인 12계통 가운데 1~2계통을 최종적으로 선발해 내년부터 농가 실증 시험을 거쳐 2010년 품종등록을 목표로 연구·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딸기는 국내 연간 생산액이 6천900억원으로, 시장 가격이 높고 안정적이어서 재배 선호도가 높지만 국내 품종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국내 품종 보급률이 높아진 것으나 전국적으로 80% 가량은 일본 품종이며 담양에서도 지난해 국산 보급률은 50%에 그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딸기 신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보급될 경우 로열티 지급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양에서는 지난해 1천400여 농가가 420ha에서 딸기를 재배, 400억원 가량의 생산액을 기록했다.

/담양=정필수기자 bungy@



완도에 진달래꽃 '활짝'

완도군 군외면 대창리 2구 국도 18호선 도로변에 진달래꽃이 활짝 폈다. 이곳은 외지인들의 방문이 잦은 도로로 사진 촬영장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ichung@

'미래산단' 나주시 동수동·왕곡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미래산단 조성 예정지인 나주시 동수동과 왕곡면 일대 1천3만㎡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나주시는 민간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292만㎡ 규모의 미래산단을 착공키로 협약을 맺고 시설설계와 환경영

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당 지역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허가구역은 28일 전남도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초순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지정 기간은 올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할 경우 나주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 이전을 할 수 없어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 의무를 지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농산물 명품 프로젝트

농협 장성군지부, 7차례 아카데미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지부장 박광호)가 사과 등 장성군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품을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군지부는 27일 농업기술센터·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연합형 '조합원교육 1차 아카데미과정'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만 7차례의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 과정에서는 장성군이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는 사과에 관한 집중교육(사진)이 이뤄졌으며, 140



여 재배농가가 참여했다. 박광호 장성군지부장은 "앞으로 배·단감·토마토·복분자 등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현장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성=정필수기자 bungy@

새 얼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검찰로"

이석환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신임 이석환(44)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은 "농업과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해남, 완도, 진도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지역민들이 잘 살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이 지청장은 송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지검 검사와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지

냈다.

특히 서울지검 금융조사부 조세조사부 차관 겸 수사팀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가족으로는 부인 윤수영(40)씨와 사이에 1남 1녀가 있으며 취미는 영화감상과 독서.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광산구민의 날 행사

10월1일로 변경

광산구가 매년 4월 20일에 격년제로 개최하던 광산구민의 날 행사를 10월 1일로 변경한다.

4월20일은 절기상 비 오는 날이 많아 구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광산구는 지난 1월 구민의 날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26일 구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의결돼 올해부터 매년 10월 1일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특히 10월 1일은 1935년 광주군의 일부였던 광주읍이 부로 승격됨에 따라 광주군을 광산군으로 개칭한 역사적 의미도 있는 날이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

나주호의 전세권

중흥 골드레이크 회원권 분양·상담

골드레이크CC	골드스파&리조트	골드레이크빌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억 골드레이크 회원권 개방·접선·V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억 골드레이크 회원권 19·28·38·57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억 골드레이크 회원권 51평형 - 20세대 61평형 - 4세대

19·28·38·57평형 (온도+평일회원)

광주 서구 동명동 500-55 중흥아파트 5층 501호 | 062-262-2278

국제 외식산업(주)

"스카이팜" OPEN

새롭게 단정하였습니다

062-262-2278

062-262-2278